

# 폭염에 소비 위축·가격 하락...시장 상인들 '이중고'

상추·열무 등 채소값 하락세 전환 사과 등 과일값 물량증가로 하락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도 '악화' "손해 감수하고 헐값에 판매" 울상

'역대급 폭염'에 소비가 위축되고 농수산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상인들은 불볕더위를 버티기도 힘든 와중에 손님들이 시장을 찾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8월 2주차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양동시장 주요 농수산물 가격은 장마 이후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한 시장 내 소비둔화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장마 기간 동안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상추(100g)와 열무(1kg)는 높은 가격인 식으로 거래가 감소해 2주 전보다 각각 9.9%, 12.5% 내린 1550원, 3500원에 거래됐다. 대파(1kg)의 가격은 2330원으로 2주 전보다 4.1% 하락했으며 풋고추(청양·100g)의 가격은 950원으로 2주 전과 비교해 5.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운 날씨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고구마(1kg)와 감자(100g)도 각각 6.2%, 9.4% 하락한 5000원, 2900원으로 조사됐다.

또 사과(10개)는 쓰가루(아오리), 홍로 등 다양한 햇사과 반입이 시작되면서 물량 증가로 2주 전보다 3.5% 내린 3만 3500원으로 나타났고, 연일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배(10개)도 고가 인식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6만1000원으로 1.6% 소폭 하락했다.

시장 내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BSI 지수도 농수산물에 크게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통시장 업종별 BSI 지수를 보면 농산물 BSI는 41.9로 전월과 비교해 5.6p 줄었으며 지난 6월 BSI는 47.6으로, 전월(59.7)과 비교해 12.1p 하락했다. 수산물의 경우 지난달 BSI는 32.6으로 전월보다 1.9p 줄었고 지난 6월은 34.5로 전월(54.8)과 비교해 20.3p 떨어졌다. 지난 6~7월 모두 업종별 BSI 지수 중 수산물의 BSI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BSI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됐다는 의미이며, 100미만인 경우 실적이 악화됐음을 뜻한다.

이처럼 시장 내 소비 둔화가 지속되자 채소와 수산물 등 여름철에 특히 취약한 상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못 팔면 버리게 되니 싸게 팔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양동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정경자(73)씨는 "채소같은 경우 당일엔 팔지 못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격을 낮춰 판매하게

된다. 상추를 4kg에 4만원에 들여온다면 1kg에 1만원은 받아야 이윤이 남는데, 7000원까지 가격을 내릴 때도 있다"며 "시장은 원래 여름이 비수기지만,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탓에 지난해 여름보다 시장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기분이야. 심하면 그날 팔기 위해 내놓은 채소의 5분의 1은 버려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이어 "시장은 주 고객인 60대 이상 고령층인데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은 시장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최고기온에 다다른 오후가 되면 시장은 더욱 한산해진다"고 덧붙였다.

김삼영(64)씨는 "여름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들어오는 물량 자체를 절반으로 줄인다. 남은 채소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물량을 조절하고 있어 열무를 50개 들여온다면 3개 정도 버려지는 것 같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버리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 파는 게 나으

니 상황에 따라 헐값에 판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60대 정모씨는 "판매하는 상품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데도 여름철에는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더운 날씨 탓인지 생선 등 수산물 선호도도 떨어져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올여름은 이른 더위가 시작된 데다 장마와 무더위가 끝없이 이어지는 탓인지 버티기가 더 힘든 듯 하다"고 말했다.

aT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도매로 물건을 들여온 뒤 시장 고객들에게 소매로 판매하는데, 여름철에는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 무더위로 인해 시장 내 소비가 둔화하며 전통시장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own.na@jnilbo.com



"무등산 수박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에서는 올 여름에 출하된 '무등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선물용으로 좋은 무게 15kg 이상의 수박부터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7kg대 수박까지 다양한 크기의 무등산 수박을 판매하며 주문 예약도 접수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경총, 신입사원 직장 적응 프로그램 '인기'

상반기 520명...장기근속 유도 맞춤형 교육...하반기 사업 확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신규로 운영 중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이 참여 기업과 청년 신입사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직장 적응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입사 초기 신입사원이 겪는 고충과 업무 스트레스 등의 해소방법을 교육해 신입사원 퇴사율을 낮추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직장 적응 지원 등이 있으며,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은 최고경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세대 이해,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적응 지원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직장 예절, 팀 협업, 기본 오피스 교육, 직급간 소통 방법의 강의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520명(관리자 290명, 신입직원 2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당초 목표한 350명을 크게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사전 신청인원까지 합하면 연간 900여명이 될 정도로 많은 참여와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서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가 있었고, 참여자는 강의내용과 조직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코비코에 입사한 박모 직원은 '신입사원 마인드셋'이라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상사와 동료 간 관계 정립, 커뮤니케이션 방법, 친밀감 유지 등

을 배워 회사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꼈던 선배와의 소통에 많은 도움을 됐다고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주)DH글로벌 이모 부장도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MZ세대를 이해하고, 신입 직원과 중간관리자 간 소통과 회사생활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면서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하반기 참여기업을 12일부터 9월12일까지 모집하며, 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업은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관리자)이나 △직장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신입사원)을 선택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자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총 일자리사업부(062-654-3427)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 첨단2단지 'KicxUp광주' 임대공장 입주 모집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는 첨단 2단지 더센텀하이테크 지식산업센터 내 'KicxUp광주' 임대공장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KicxUp은 산단공 스타트업(KICOX·StartUp)의 의미로 창업·중소기업들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오픈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신산업 육성 성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업지원 시스템이다. 이번 KicxUp광주 임대공장은 총 18개 호실로 84~889㎡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모집은 오는 2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제 1132회 로도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6 7 19 28 34 41	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4억945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039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2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 광주은행, 풍수해 피해업체 1천억 특별지원

광주은행은 하절기 풍수해 피해 업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1000억원(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한도로 조성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 및 중부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업체당(개인사업자 포함) 최대 3억원, 개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0%p(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당행 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업체는 별도의 원금 상환 없이 1.0%p의 금

리감면과 함께 1년 이내로 기한 연장 가능하고, 분할상환금도 6개월간 유예시켜 피해 업체들의 빠른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 현장에 파견해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 금감원 Q&A

여름철은 휴가 등으로 장거리 및 낮선 지역 운전이 증가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다. 이에 렌터카 등 다른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를 안내합니다.

**문** 고대 운전전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 있나요.

**답**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고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이 내 차량

## 여름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을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세요.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반면,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세요.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 렌터카 운전전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 있나요.

**답**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하세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세요.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합니다. 본인이 가

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세요.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 및 휴차료 등을 보상합니다. '렌터카 손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상이할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차량 등은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답**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및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특약 가입 후 긴급상황 발생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총 이용횟수가 제한(총 6회)되고 특정 서비스의 경우 개별 이용횟수도 제한(비상급유 2회)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통해 상세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출처: <http://www.fss.or.kr>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